

## 2-24. 늪의 육화현상에 따른 지표보행성갑충상의 천이

도윤호\*, 문태영

고신대학교 법/보전생물학연구실

경남 울주군 무제늪은 육화 혹은 건조화가 가속되고 있지만, 산지늪에 서식하는 생물에 대한 연구가 극히 부족하여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육화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무제치늪과 그 주변산지에서 지표보행성 갑충군의 출현양상과 종조성의 차이를 조사하며 육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산지성 갑충종들이 늪으로 침입하여 결국 늪의 지표보행성갑충군의 천이가 나타나는 경향을 추적하였다. 늪에서는 15종의 갑충들이 조사되었는데, 특히 먼지벌레과(6종, 40.00%)와 딱정벌레과(5종, 33.33%)에 속한 종들이 11종으로 전체 66.67%를 차지하였으며 반날개과가 2종(13.33%), 다른 곤충군(科)에 속한 종들은 각각 1종(6.67%)이 채집되었다. 반면 정족산에서는 10종이 채집되었는데, 사개천먼지벌레가 우점종으로 나타났다. 이 종은 산지성 종으로 무제치늪의 육화에 따라 목본식생이 침입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외의 다른 종들은 늪, 산지, 논에서 분명한 종조성의 차이를 보여, 늪에서 산지로의 육화현상에 지표보행성 갑충군 집과 종조성은 좋은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